



정노중  
파트너, 한국팀장,  
모스크바 변호사 협회 회원,  
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, 법학석사

[nc.cheong@pgplaw.ru](mailto:nc.cheong@pgplaw.ru)

빼펠라예프 그룹 한국팀은 정노중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.

정 변호사는 국제 계약, 국가 간 투자, 기업, M&A, 국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남북한법과 러시아법에 1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정 변호사는 러시아에서 국제 상사 분쟁, 국제 특허 분쟁과 강제 집행 소송들에 대해 경이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. 또한 Chambers Global 2014는 정변호사를 기업/M&A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하였습니다.

정 변호사는 1997년 성균관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(90학번) 2001년 모스크바 법학 전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..

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모스크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모스크바 변호사 회원이 되었습니다. 빼펠라예프 그룹에 합류하기 전 한국 대표 법인들인 ‘SHIN&KIM’과 ‘LOGOS’에서 파트너로 근무하였습니다.

정 변호사는 2013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인으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정 변호사는 한국어, 러시아어,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.